하나님 필요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기

(신명기 32:1~52)

10.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11.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12.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3.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15.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필요를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기'
캐나다 밴쿠버에 "카필라노"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공원처럼 관리가 되는 곳인데 이곳에는 지상 3m 높이의 단단한 목조다리가 있고, 계곡과 계곡 사이에 무려 70m 높이의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외모가 아주 평범한 젊은 여성이 각각의 다리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를 건너오는 남성들에게 설문을 부탁하고, 원하신다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설명해주겠으니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설문에 응하고 전화번호를 가져간 남성들 중에서 전화를 건 사람을 세어보니 두 종류의 다리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안전한 목조다리를 건너온 남성들의 경우에는 16명 중에서 불과 2명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가 살짝 넘습니다. 반면에 70m 높이의 흔들다리를 건너온 남자들의 경우에는 18명 중에서 무려 9명이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50%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70m 상공의 흔들다리를 건너온 남자들은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아드

레날린이 강력하게 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관심이 더 강하게 발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모가 두드러지게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의 마음으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이성적인 매력이 더 강하게 어필이 되었다는 애깁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잠시 동안 '우리'라는 일시적인 정략적 연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야'라고 시작한 사랑도 상황이 바뀌면 사랑도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사랑도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고 다니는 옷이 바뀌고 먹는 음식이 바뀌면 사람도 사랑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바뀌는 주된 이유는 '우리'에는 '겉 우리'와 '속 우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마음속 우리를 위하여 겉으로 우리를 사랑이 아닌 필요로 유지하게 됩니다. 속 우리가 형성이 된 후에 만나는 겉 우리는 반드시 사랑이 지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필요가 지배하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속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서 속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사랑이 기쁨으로 귀결되는 존재와 속 우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온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 우리는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돈이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부모,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도 연합하여 속 우리가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믿어지는 존재들입니다. 나와 권력, 나와 사업, 나와 건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평생 동안 속 우리의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만 일단 이렇게 속 우리가 형성이 되고나면, 그 이후에 만나는 모든 대상은 단지 겉 우리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에 겉 우리와 작용하는 마음은 전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필요하면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에 미군부대의 기지촌 아가씨들이 미군과 결혼을 하여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서로 지독하게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다 싶고 마음속으로 기쁩니다. 기지촌까지 오게 되는 과정은 참으로 불행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미군을 만나 부부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해도 미국은 천국 같고 우리나라는 지옥 같이 느껴질 정도의 문명의 차이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등 국가인 미국을 가게 되면 얼마나 잘 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통계가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면 70%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군들이 한국에 머물며 여자를 만날 때에는 나그네의 심리상태로, 모든 것이 낯설고 힘이 들기 때문에 여자를 필요로 해서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

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있을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를 보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이번에는 여자가 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기민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내용인데 가난한 여자가 공장에서 일해서 남자 뒷바라지를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자 상황이 바뀌고 사랑도 바뀝니다.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는 해야 하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한데 어떤 여자가 와서 공장 일을 하며 번 돈을 주니 필요한 김에 좋아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원래 속 우리가 아닌 겉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앞 장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선민들의 미래에 대해 '이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릴 때에 분명히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매를 칠 것인데 그렇게 환란이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러는 것 아니냐고 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선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노래의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잘살게 된 것까지를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될 내용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내용인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덕분에 다 주어져서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기름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속 우리가 아닌 겉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15~16절에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여수룬'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시는 별명이고 애칭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정직한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 중에 가장 예뻐하시는 자들이 정직한 자입니다. '야솨르'가 '정직'이라는 말인데 이 '여수룬'이 야솨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선민이 정직하기를 바라셨는데 선민은 시작부터 정직하지 않았고, 속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겉 우리면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31:20절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는 말씀을 보았고, 8:12~14절에서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 17~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고 하시는데 참 이상합니다. 배부르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져버릴까요? 필요에 의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똑같은 형편에 처해있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유럽 기독교도 복지가 이루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는데, 안정된 삶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이고, 인간의 힘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흥성회를 해도 도시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옛날 부흥회에 1/10도 모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필요 때문입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풍요와 다산과 내가 속 우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좀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돈과 내가 속 우리가 되어있어서 하나님은 겉 우리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라고 하고 기독교를 향해 '우리'라고 합니다만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깨어지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건대 선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으로 우리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삼위일체에서 사위일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지를 사는 선민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거듭남'은 반드시 '우리의 거듭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가 있어야 선생이 되고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되고 자녀가 있어야 아빠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거듭남은 우리의 거듭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나와 가족이 우리였는데, 믿고 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서 사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 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죄악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사위일체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17: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을 뜻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사위일체가 되어서 속 우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실제가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선민은 삼각관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과 나와 하나님의 삼각관계 안에서 활동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내를 만날 때에도 아내와 나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를 생각할 때도 나라와 나와 하나님과 삼각관계 안에서 나라에 관계합니다. 이때에 두 가지 우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돈을 관계할 때에 돈과 나와 하나님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을 속으로 먼저 연합하여 마음속에서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기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의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거꾸로 하나님과 내가 먼저 우리가 되면 돈이 하나님 뜻을 위한 필요의 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아내가 먼저 우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삶을 위한 필요로 전락되는데, 하나님이 겉 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먼저 속 우리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사위일체가 되면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을 펼치시는 대상이 됩니다. 선민인 한대민민국과도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야 하고 천국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상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이고 우리의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멀리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닌데 그러나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천국사람입니다. 천국과 우리가 되어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될 때에 진정으로 대한민국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먼저 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가 진짜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난리를 치며 기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좋은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구성하는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도 속을 들여다보면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가 딱딱한 고체 알갱이인줄로 알았는데, 전자가 원자핵의 주변을 회전하는 운동체입니

다. 볼펜은 딱딱하지만 계속해서 쪼개다보면 다 움직이고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의 크기는 1억 분의 1cm입니다. 그리고 원자핵은 다시 원자크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계산해보면 10조 분의 1cm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작은 원자핵의 주위를 전자가 도는 속도는 1초에 1,222km입니다. 빛이 1초에 30만km를 가는 빛에 비하면 작은 속도이지만 10조 분의 1cm의 알갱이 주변을 1초에 1,222km로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자의 궤도를 10cm라고 친다면 1초에 천만번 정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것을 10조 분의 1cm로 환산하면 1초에 수십억 번을 돌고 있기 때문에 고체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어떤 건물에 침입하려고 할 때에 환풍구를 이용하는데 환풍기가 빨리 돌면 침입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회전속도가 너무 강하고 많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는데도 고체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속 우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클을 따라 회전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서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일체가 됩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교제를 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도 그대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서클의 반을 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나머지 반 서클인데 이 서클을 끊임없이 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바라보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채웁니다.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 서클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대할 때에 자녀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좋은 길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간 다음에 나머지 반 서클은 무조건 하고 자녀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목회와 내가 하나 되어서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목회에 대해 죽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망하게 해주시

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목회가 커지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목회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필요로 찾았다면 목회가 커질 때에 반드시 타락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속 우리와 겉 우리를 알고 하나님과 속 우리가 됨으로서 사위일체가 되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 필요를 따라 그들을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관계하는 진정한 복지를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속 우리가 거듭나도록 내용을 바꾸게 해주시며, 그리하여 주님이 가신 서클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돌아서 하나님과의 속 우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모든 겉 우리의 관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행하며 사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